

## 글로벌금융위기의 경험에 비추어 본 경기침체가 청년에게 미치는 장기적 영향

- 2009년 글로벌금융위기 당시 졸업생은 상대적으로 낮은 노동시장 성과를 졸업 이후 6년까지 지속적으로 경험하였고,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기인 2020년 졸업생 역시 유사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측됨.
- 경기침체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들이 겪게 될 장기적인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기 위하여, 인적자본 축적 기회 제공 및 노동시장 정보체계 효율성 향상 측면의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.

### 01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자료

| 글로벌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기인 2009년 졸업한 청년들의 노동시장 경험으로부터, 2020년 현재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들이 경험할 것으로 예측되는 부정적 영향을 진단함.

- 경기침체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들은 경력 초기에 비경험, 실업, 하향취업 등의 상태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고, 이러한 이행은 단기적인 임금 손실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.
  - 인적자본 축적이 가장 활발히 일어나는 시기의 인적자본 축적 기회 상실, 열위의 노동시장 이력이 부정적인 신호로 작동 등이 장기적 영향의 요인
- 글로벌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가 절정에 달한 2009년에 대학을 졸업한 임금근로자의 졸업 후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함으로써,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들이 겪게 될 부정적 효과를 예측해볼 수 있음.

| 분석자료: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(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)

- 2007년~2011년 기간 대학 졸업생(전문대학 포함)의 졸업 이후 6년까지의 노동시장 성과를 관측할 수 있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2007년~2017년 기간 원자료 활용
  - 2009년 졸업생과 유사한 특성을 가질 것으로 기대되는 2007년, 2008년, 2010년, 2011년 졸업생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하고, 졸업 이후 6년 간의 노동시장 성과를 졸업연도에 따른 집단별로 비교
  - 노동시장 성과는 임금근로자의 종사상지위 정보(상용근로자/임시근로자/일용근로자로 구성)로부터 산출한 상용직비율(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상용근로자의 비율)로 측정

### 02 2009년과 2020년의 경기침체와 청년 고용 부진

|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2020년의 경기침체는 2009년 글로벌금융위기 당시의 경기침체와 비견될 만하고, 두 위기에서 심각한 청년 고용 부진이 발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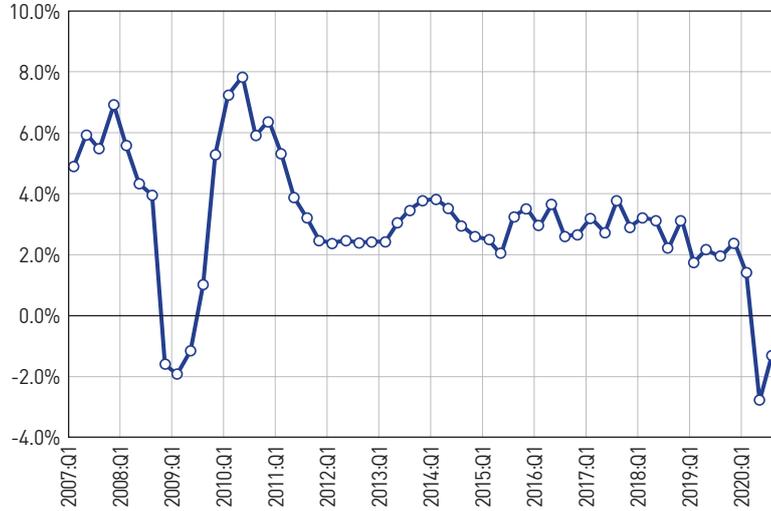
- 2020년의 경제성장률은 2009년만큼 낮은 수준으로, 각 위기에서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시점인



2009년 1분기, 2020년 2분기에서 각각 -1.9%, -2.8%의 경제성장률을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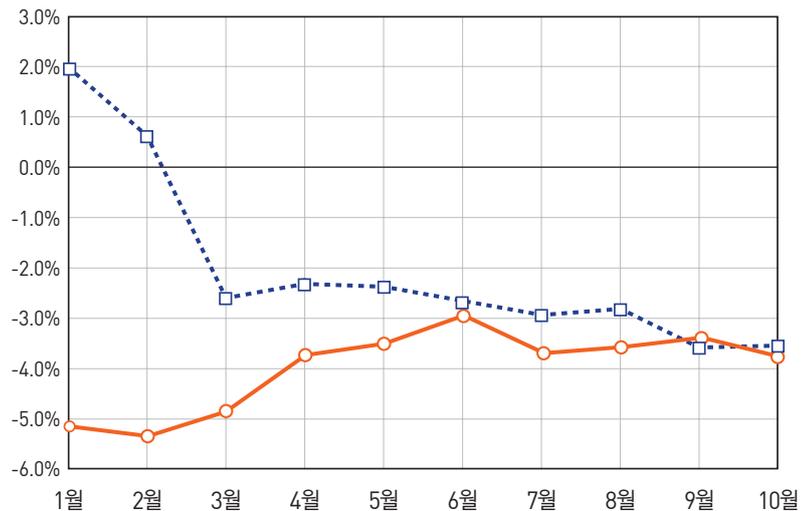
-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한 2020년 3월 이후 전년 동월 대비 20~34세 취업자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-2.0% 미만을 기록하면서, 2009년 수준의 청년 고용 부진이 지속

주 |  
자료: 국민계정(한국은행)



[그림 1] 전년 동분기 대비 경제성장률

주 |  
자료: 경제활동인구조사(통계청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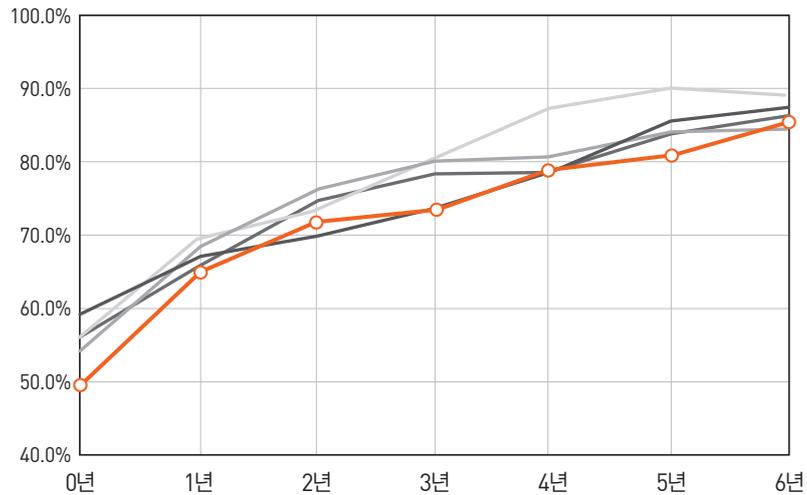


[그림 2] 전년 동월 대비 20~34세 취업자 증가율

### 03 2009년 졸업생의 지속적으로 낮은 노동시장 성과

| 2009년 졸업생은 다른 해의 졸업생에 비하여 졸업연도부터 졸업 이후 6년까지 일관적으로 낮은 상용직비율을 보여, 노동시장 진입 시점 경기침체의 부정적 영향이 장기적으로 지속됨을 시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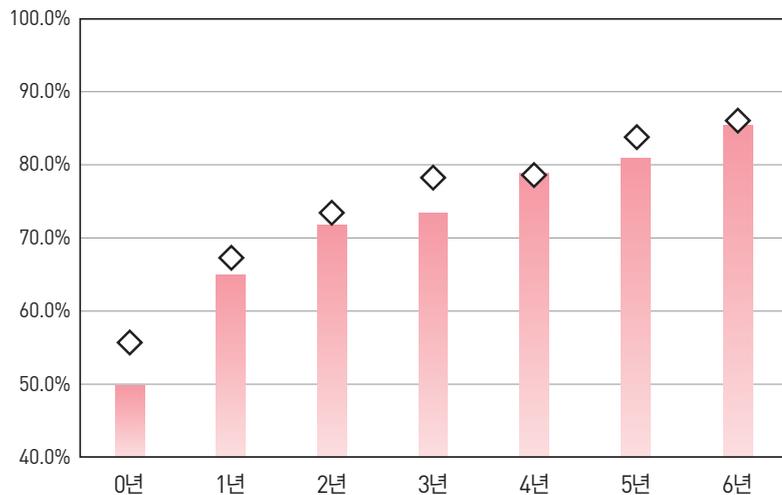
- [그림 3]의 가로축은 졸업 이후 경과된 기간을 의미하고, 세로축은 상용직비율을 의미하며, 졸업연도로 구분 (2007~2011년)된 집단별로 졸업 이후 6년까지의 상용직비율 추이를 제시
  - 예를 들어, 2007년 졸업생은 2007년~2013년 시점에서의 통계량이 제시되고, 마찬가지로 2011년 졸업생은 2011년~2017년 시점에서의 통계량이 제시됨.
- 2009년 졸업생은 졸업 당해 연도부터 가장 낮은 상용직비율을 보이고, 졸업 이후 동일한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측정된 상용직비율에서도 지속적으로 다른 해의 졸업생에 비하여 낮은 수치를 기록



[그림 3] 졸업연도별 졸업 이후 6년의 상용직비율 추이

● [그림 3]과 동일한 가로축과 세로축을 가지는 [그림 4]는 5개년도 졸업생의 상용직비율 중간값을 2009년 졸업생의 상용직비율과 비교함으로써 [그림 3]에서 확인한 사실을 직관적으로 제시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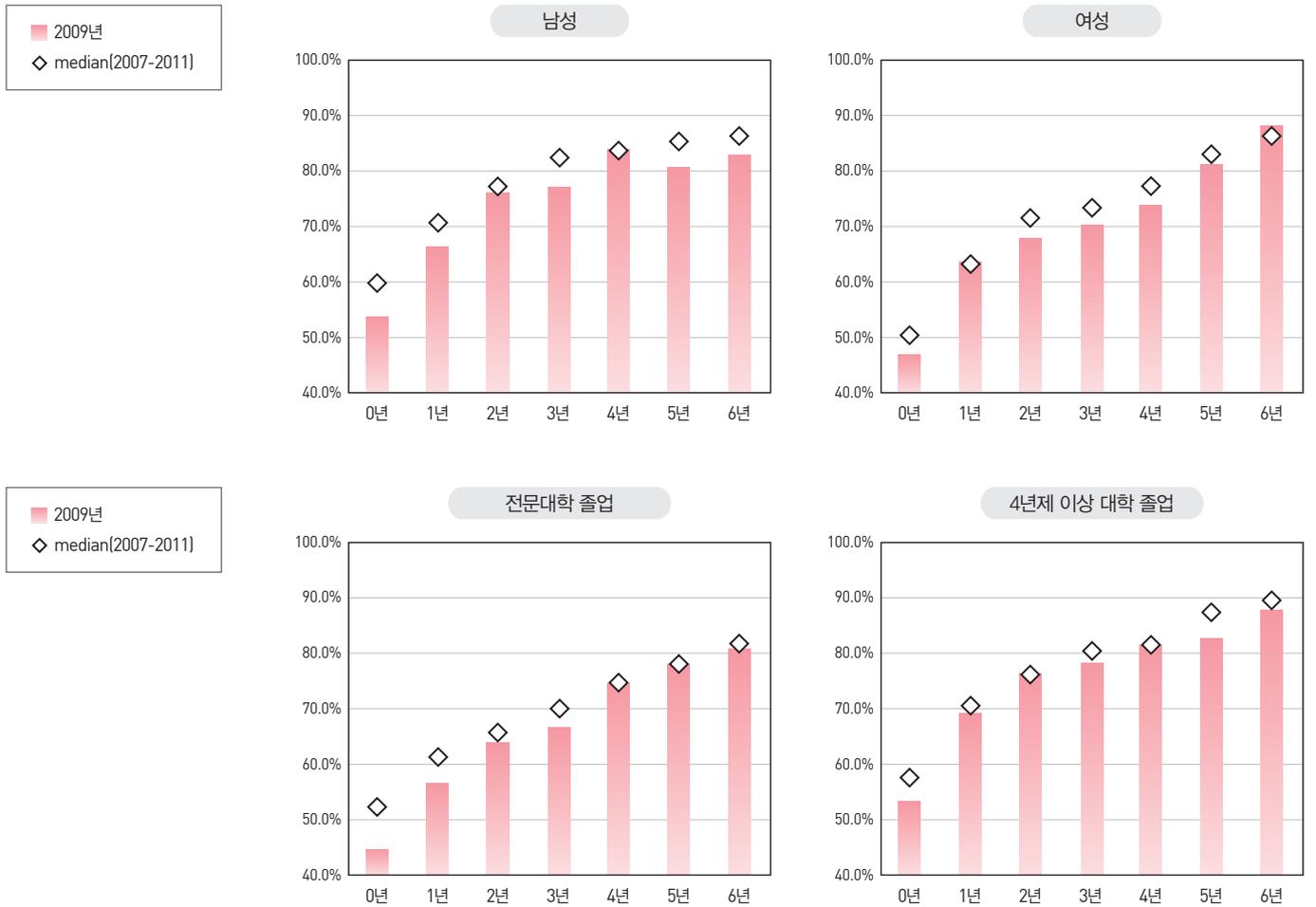
– 중간값과 비교하여 2009년은 모든 시점에서 낮은 상용직비율을 보이고, 그 차이는 졸업 당해 연도, 졸업 1년, 2년, 3년, 4년, 5년, 6년 이후 시점에서 각각 6.0%p, 2.2%p, 1.4%p, 4.7%p, 0.1%p, 2.9%p, 0.8%p에 달함.



[그림 4] 졸업연도별 상용직비율의 중간값과 2009년 졸업생 상용직비율의 비교

| 2009년 졸업생의 지속적으로 낮은 상용직비율은 성별, 학력에 관계없이 일관적으로 관측됨.

● [그림 4]와 동일한 방법으로 2009년 졸업생의 상용직비율과 다른 해 졸업생의 상용직비율을 성별, 학력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는 [그림 5]에서 보듯이, 2009년 졸업생의 상대적으로 낮은 상용직비율이 지속된다는 사실은 모든 성별과 학력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남.



[그림 5] 졸업연도별 상용직비율의 중간값과 2009년 졸업생 상용직비율의 비교: 성별, 학력별 구분

#### 04 결론 및 시사점

- 경기침체에 노동시장에 진입한 2009년 졸업생은 졸업 이후 6년 동안 지속적으로 다른 해의 졸업생에 비하여 낮은 상용직비율을 기록하고, 이는 성별, 학력에 관계없이 일관적인 특성임.
-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침체된 2020년에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들은 2009년 졸업생과 유사하게 장기적으로 낮은 노동시장 성과를 획득할 것으로 예측됨.
-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경기침체에 의하여 개인이 겪게 될 지속적인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.
  - 비경험 · 실업 · 하향취업 등으로 이행한 청년들에게 인적자본 축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
  - 경력 초기의 노동시장 이력보다는 개인의 능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동시장 정보체계의 효율성 제고 필요

설 귀 환 (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)